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201920144 서경덕

「융합프로그래밍1」, 「수치해석과 기계학습」, 「융합설계 및 지식재산권」 강의페어링, 신호재 교수님 지도

강의페어링



연구 배경

- 인공지능은 인문, 사회, 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고유 학문으로 여겨지던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창작된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저작물 인정에 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2022년 2월 미국에서 인간이 창작한 독창적인 작품만 인정하여 ‘창작기계’ 라는 AI가 그린 예술작품 저작권 등록 거절되었다.
- 2. 2023년 2월 21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 생성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 완성품에 사람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3.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이 기존 저작물을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연구 목적

-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부여를 찬성, 반대하는 입장에 관한 연구
-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에 저작권 부여를 반대 및 개인적인 견해에 관한 주장

본론 1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반대 의견



-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인공지능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또한 인정될 수 없다.
-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면 일반 창작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
- 현행 저작권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하는 것은 ‘지시, 명령’ 그 자체이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현행 저작권상 보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것이기에 아직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기 어렵다.
- 인간이 단독으로 완성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만들어낸 작품의 경우 인간이 독자적으로 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본론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AI 플로머즈가 작곡한 비틀즈 풍의 '아빠의 차'	AI '미드저니'를 통해 그려진 만화 '새벽의 자리야'	AI 샤오빙이 출간한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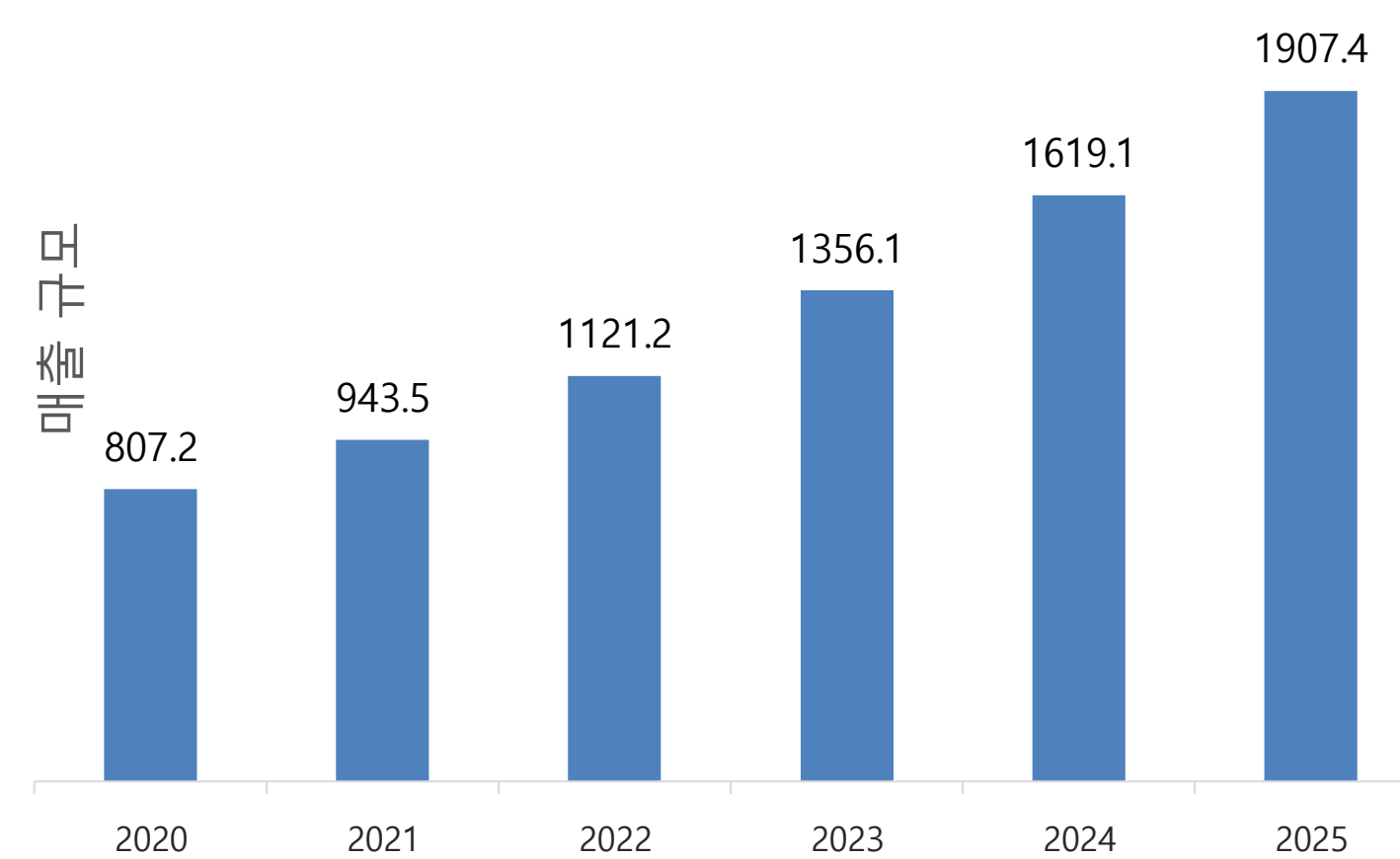
- 컴퓨터 생성물에서 나타나는 ‘독창적이고 지적인 구상들’은 인공지능 자체의 구상이 아니라 여전히 창작과정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을 인간이 만들고 통제해서 나온 구상들이라는 것이다. 즉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지각이 있는 ‘저작자’가 아닌 하나의 창작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 지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의 안창욱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과 음악 크리에이터 ‘소울(SOUL)’이 공동 작업한 음원이 출시됐다. 기획사에 속한 가수나 연습생이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음원을 발매하거나 가수로 데뷔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일반인이 AI 작곡가와 함께 곡을 작곡해 음원을 낸 것은 최초이다. 이번 소울의 데뷔 곡 ‘스트레인저’ 제작은 AI작곡가와 인간의 실제적인 협업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향후 다가올 초메타버스 시대의 거대 콘텐츠 시장에서 AI기반 1인 창·제작 서비스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 신시사이저는 사운드로 변환될 수 있는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는 전자 악기로 각종 악기의 음색을 전자적으로 발생시키고 변경, 합성하여 연주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다. 작곡가들은 ‘신시사이저’를 활용하여 더 쉽게 작곡을 진행하고 ‘신시사이저’는 하나의 작곡을 위한 도구로 보는데,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곡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음악 분야에서, 창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본다면 인공지능 또한 작곡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한다.

본론 3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 인공지능을 창작 과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고 그것을 활용한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모든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이 창작활동을 한다면, 그것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합작품이 될 수 있다.
-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창작된 작품은 여전히 창작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만든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대우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는 기회와 보호를 제공하고,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장려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창작된 작품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여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창작자는 작품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창작자들이 창의적인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창작의 다양성과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저작권은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는 작품이 불법적으로 복제, 수정 또는 도용되는 것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의 전망



결론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물을 제작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 부여에 대한 문제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을 창작 수단의 매개체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에게도 저작권을 부여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 개념 재정립,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7년
-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정상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개념, 정원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년